

전통마을의 문화지속성에 관한 연구

- 경북 영천 선원리 마을을 중심으로 -

고석철 · 장병관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원예조경학부

I. 서론

주거의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는 단순히 물적 계획의 혁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주거개발 시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문화환경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주거환경개발에 문화지속성 개념을 포함시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물적 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민의 측면에서 만족스런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지속성의 개념을 새로운 주거환경개발 시,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고자 기존의 문헌을 통해 문화지속성 지표를 연구하였으며 사례 대상지를 통해 지표를 적용하였다. 사례마을은 지속 가능한 체계로 현재까지 내려온 전통마을인 영천 선원리 마을을 선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사례지 선정

본 연구사례지인 영천 선원리 마을은 대부분 정씨일가로 이루어진 동족마을이며,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또한 이 곳은 지속 가능한 체계로 현재까지 내려온 전통마을로서 문화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지로 우선 판단할 수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거주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구수행에 편리한 이유도 부차적인 선정의 사유가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문화지속성 측면의 지표를 개

발하여 주거단지의 설계·계획시 도입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농촌마을 그리고 전통마을에 대한 문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문화지속성 지표를 개발하여 이것을 사례대상 마을에 적용하여 해석하고자하였다.

3. 전통마을의 문화지속성 지표개발

본 연구는 주거단지계획과 설계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수집하여 문화지속성 영역을 만든 다음, 지표를 구분하고 개별 평가행위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었다. 문화지속성 영역의 중간지표는 전체 경관으로 전통마을임을 평가할 수 있는 전통문화경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을을 유지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그리고 전통마을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최종지표는 중간지표 분류 후, 문헌에서 가장 많이 추출되는 지표들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III. 문화지속성 평가

1. 선원리 마을의 현황과 특성

경북 영천시 임고면에 위치한 선원리 마을은 높이 200미터의 鶴山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조선 인조 때 벼슬에서 물러난 정호제가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비유하여 선원이라 명명하여 정착했다. 마을에는 보물 513호로 지정된 철불좌상을 비롯하여, 중요민속자료 107호로 지정된 정용준씨 가옥과 경상북도 민속자료 87호인 환구세덕사, 문화재자료 230호인 합계정사 그리고 많은 정자와 재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주민의 경제생활은 과수원경작과 벼농사, 밭농사 등의 농업에 의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의 호수는 70호 정도이며 인구수는 남녀 각각 100명 정도이며 대부분 노년과 장

표 1. 문화지속성 지표

중간지표	지표	집검표
전통문화경관	건물·구조·대상물	• 마을 내의 특징적인 건축물의 유무
	역사적 부지와 유적	• 문화재 및 유적에 대한 현황: 종류와 수
	무형전통문화	• 마을의 독특한 무형문화: 춤, 민요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토지이용행위	• 과거 토지이용 행위와 현재 토지이용 행위의 비교: 차이점과 변화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 마을의 자연체계에 대한 주민의 반응
	순환네트워크	• 자연자원의 재활용, 물 순환방법, 토양개선방법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	마을의 상징	• 상징체계의 유무와 내용 • 상징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
	영역경계	•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의 경계
	공동체 의식	• 공동활동의 유형과 참여 • 마을의 결속력의 정도

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통문화경관 중간지표

1) 건물·구조·대상물: 선원리 마을은 70여호의 가구들이 현재 살고 있으며, 마을의 건물 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채실이나 정자 등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거건물의 형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보일러시설, 부엌, 화장실 등의 개·보수는 많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2) 역사적 부지와 유적: 선원리 마을 내의 중요한 문화적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서 마을뒷산(학산), 마을숲(도래숲), 정자목, 정원(원지원도), 휴식공간(덕소, 조양대) 등이 마을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3) 무형전통문화: 선원리 마을은 유교적 정신이 문화전통을 유지하는데 큰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 예로 문중회의를 통한 마을의 운영과 유지, 사시제, 기일제, 묘제 등의 제례 등과 명절에 함께 차례를 지낸다. 또한 마을 앞 공터에서 씨름놀이 등 마을 주민이 함께 일과 놀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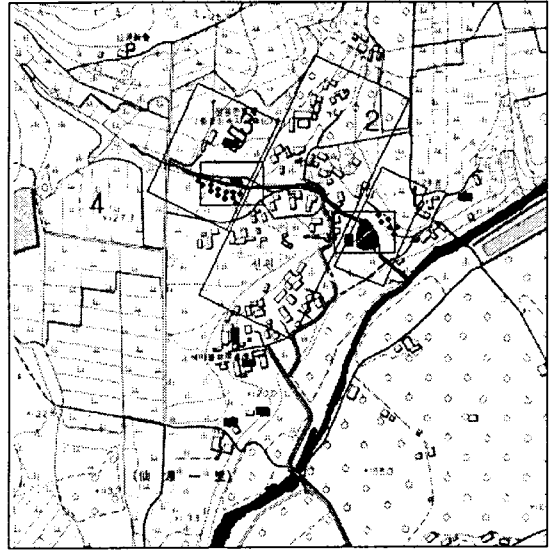


그림 1. 마을의 현황과 상징

1: 학의 꼬리; 2: 학의 날개; 3: 학의 머리; 4: 그 외영역

3.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중간지표

1) 토지이용행위: 토지이용은 전·답의 변화와 농작물 종류의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경작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므로 토지이용행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마을 입구와 마을 안길은 포장이 되어 차량이동에 용이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마을의 샛길은 아직까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다.

2)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배산임수의 마을배치와 함께 하천을 중심으로 토지형태에 따른 단위주거의 배치, 마을 숲의 조성과 자연형 하천의 유지와 주변의 녹지보전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유지, 음식쓰레기 등 자연퇴비의 이용과 자급자족 형태의 텃밭으로 자연환경의 유지 등 자연과 함께 동화된 삶을 볼 수 있다.

3) 순환네트워크: 선원리 마을의 자연에 순응하는 물의 순환체계가 돋보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연적인 하천과 옛 마을 입구의 연못은 우수와 생활하수 등을 자연정화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순환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토지이용행위와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이 마을을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4.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 중간지표

1) 마을의 상징: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하는 마을의 풍수지리형국은 학이며, 이러한 학의 형태로 본 마을은 세 부분인 학머리, 날개, 꼬리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머리의 혈은 종가인 정용준 가옥과 연정이 위치하고 있고, 날개부분에는 정씨 일가들의 일반가옥들이 주거, 생활로서 차지하며, 학꼬리 부분인 학다리에는 마을입구의 진입부분으로 정자목, 정자, 연못, 마을 경계의 의미를 가진다. 즉 마을의 자연형세의 상징에 따라 마을의 크고 작은 공간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2) 영역경계: 설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지영역을 조사한 바,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의 영역을 자신의 전·답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생산공간으로서의 자신의 전·답·임야를 의식공간으로서 재실, 묘소 등을 포함하였으며, 정자의 위치와 마을 앞 하천이 마을을 경계 지우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체 의식: 동족마을로서 주민은 마을 내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의 대소사는 문중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또 마을 주민들은 그 결과를 믿고 따르고 있다. 또한 두레와 품앗이 등을 통한 농사일은 마을주민을 결속시키며 상호 간에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첫째, 9개의 지표들은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농촌 및 전통마을환경, 문화지속성과 문화경관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문화지속성 중간지표를 전통문화경관, 지속 가능한 전통행위 그리고 전통마을의 상징 및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선원리 마을은 마을의 입구변화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향토경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의 혁신적 개발을 거부하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셋째, 선원리 마을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많은 역사적 부지와 건물들, 중요한 민속자원과 문화자원, 전통가옥 그리고 재와 정자 등의 문화재를

양호하게 보전하고 있었다.

넷째, 주민들은 학산과 학머리혈 등 마을입지에 대한 풍수지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상징성과 정자와 재실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은 마을의 영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지역과 토지의 잠재력이 장차 그 속에 살게되는 주민에게 지속적인 거주사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의 상징과 전체적인 경관구조는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에 연구자가 제시한 9가지 지표가 주거단지계획·설계에 나타나 있는 것을 고찰하면, 먼저 단지계획에서 보전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비롯한 역사성이 있는 요소들을 미리 분석하여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물체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물흐름을 살려서 시각생태학 측면에서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결속을 위하여 광장과 공원을 아파트 중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과거의 형식에 치우친 외부공간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오늘날의 주거단지계획·설계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 인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인용문헌

1. 박원규(1999)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 계획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영천향토사학연구회(1997) 골벌 제3집. 대구 : 맑음.
3. 한필원(1996) 전통마을의 환경생태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7호.
4. Community Sustainability Resource Institute(1998) Sustainability in action. concern, inc.
5. Donella Meadows(1998) Indicators and information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ustainability Institute.
6. Peter Hardi and Stephan Barg(1997)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current practice. Occasional Pap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7. Robert L. Thayer, jr.(1994) Gray world, green heart. john wiley & sons, inc.
8.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Hartmut Bossel.
9. <http://www.gnsu.ac.kr/~mirkoh/course/hnc/lecture/lect11.htm>
10. <http://www.icis.harvard.edu/landguage/whatare.htm>